



이 자 영 | (주)E환경디자인 팀장
(ly3331@hanmail.net)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메시지message 가득한 디자인의 함정

인간은 철저하게 시각적 동물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 많은 것을 판단해 버린다. 그렇지만 여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작용도 함께 일어난다. 역사가 가득한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을 올랐을 때, 마치 과도처럼 역사를 춤추게 하는 바람이 일었다면, 우리는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자연이지만, 더욱 감명을 받는다. 눈에 보이는 역사밭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시월의 마지막 밤에 떨어지는 낙엽진 거리를 거닐면 왠지 마음이 스산하면서 낭만적이고 싶은 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누구의 노래 때문일 수도 있고 과거 같이 걸었던 그가 생각나서일 수도 있다.

그렇게 공간은 장소로서,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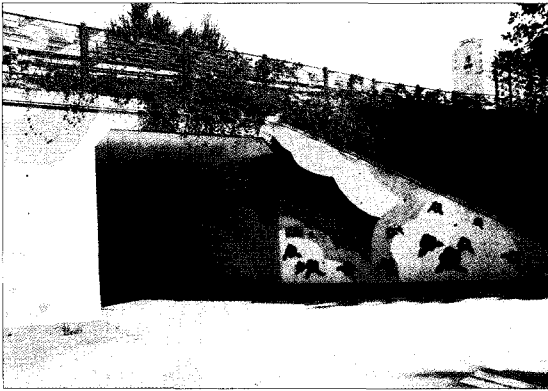
그래서 국토를 설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장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장소에 호랑이 전설이 있다고 호랑이 캐릭터를 그리면 곤란하다. 지나친 사실화는 상상력을 제한하고 유치한 경관을 만들어내기 쉽다. 그냥 그 느낌을 묻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미인을 이야기할 때 립스틱 진하게 바른 화장 진한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묻어나는 사람을 미인이라 하듯이, '나 예뻐요!', '나 칭찬했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들은 그 아름다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에는 저급해보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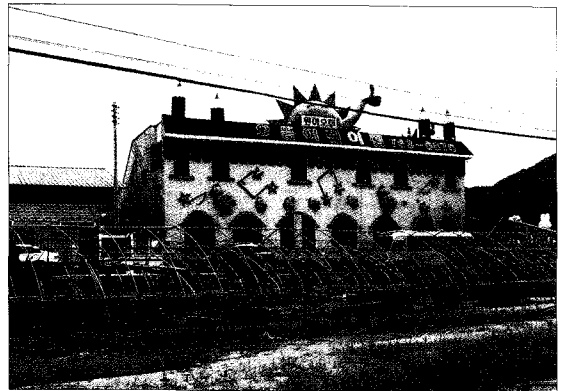
네이버 포토갤러리 청과 박철님의 사진
글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술어진 역사군락에서 가을의 바람이 느껴진다.



cafe.naver.com/ubslee
떨어져 수북이 쌓인 낙엽마다 저마디의 사연이 있을 것 같다.



중의공원 주차장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로 가는 지하보도,
나 예쁘게 치장했어요 하고 오치는 듯. 하지만 과연?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슈퍼그래픽이 비엔날레와 조합이 되는가?



근지암천변에 위치한 으뜸어린이집,
태양이 으뜸을 상징하는 엄지를 치켜들면 이곳의
어린이들이 으뜸이 되는 건지? 주제에 집착한 나머지
초극 사실적 표현으로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간과한다. 알면서도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클라이언트 수준이 이러니까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며 지나치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제도도 사람도 성숙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경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바람도 있으며 빛의 양, 청각적인 것들, 촉각 등이 있을 것이며 인간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 말고도 날아가는 새들의 군무와 같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곳만의 이야기, 즉 지역의 역사문화'가 있다. 그런데 지역의 역사문화가 갖는 느낌이 바람이나 새들의 움직임과는 무게감이 다른데,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오랜 시간의 껍질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연의 것들은 인간들이 컨트롤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입하기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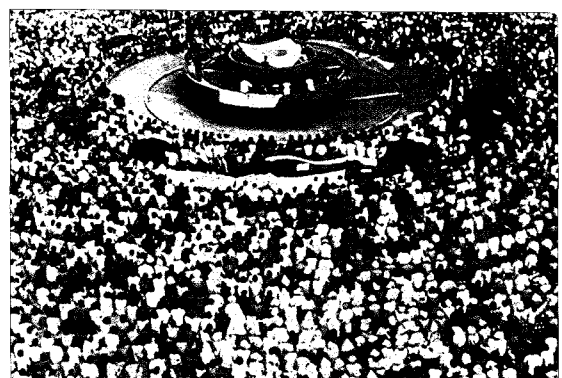
지만, 역사문화는 인간들이 컨트롤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나는 오늘 광주(光州, 광주천을 중심으로)를 이야기하려 한다. 광주만큼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도시도 드물거니와 개인적으로 필자의 고향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먼저, 광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면 가슴에서 뿜어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 마치 열큰한 우거지탕을 먹고 난 후의 느낌이랄까... 대개 고향하면 정겹고 포근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르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짐작하겠지만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남동생을 임신한 배부른 몸으로 시민군들에게 피줄 밥을 해서 날랐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때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를 간접적으



광주에 나타난 계엄군의 차량들



518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수업시간에 답사를 간 518기념공원에서 몇 시간을 평평 울었던 기억.....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전투경찰들, 군인들에게 맞아서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배가 터져버린 임산부 등등.....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마의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재조명된 것은 사건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다. 광주는 '뜨거움'이다.

각설하고, 두 번째, 광주는 '무등산'이다.

어머니의 품처럼 든든하고 편안한 산, 무등산.

무등산(無等山) 이름 뜻은 여러 개가 있다. 등이 없이 평평하다는 뜻(개인적으로 민주도시에 어울리는 뜻 아닌가 싶다), 신령한 산이라 무당이 많아서 무당산이라 불렸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실제로 광주를 비롯한 많은 남도민들이 무등산을 신성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등.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등산의 높이가 꽤 높은 1,187m인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 1,000m 이상의 산이 있는 경우는 전세계 유일하다고 한다. 무등산의 서석대와 입석대는 1억년전 지구 역사를 말해주며 증심사 계곡으로 유명한 등산로 초입에는 맛있는 먹거리와 아름다운 계곡이 유명하다. 이 계곡물들은 흘러 광주천이 된다. 또 의재 허백련이라는 걸출한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나도 으레 타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무등산 증심사로 데려가 경치를 보여주며 맛난 보리밥을 대접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 외 다양한 이

야기거리와 먹을거리, 볼거리가 득실한 산이다.

마지막으로 광주는 '맛있는 먹거리(=풍요로움)'다.

풍요롭던 남도땅이었으나, 나라가 망하면서(일제 강점기)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은 더더욱 살길이 어려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부쳐 먹을 돈을 뺏겨 그렇게 서러운 마음을 품고 올라오게 된다. 광주로... 이렇게 일제에 의해 도시 계획이 세워지고 광주는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0년대 1년 동안 무려 82%라는 폭발적 인구증가가 있었다). 추측컨대 광주에 유달리 맛있는 음식들과 식당들이 다양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각기 다른 배경에 자란 다른 입맛과 재료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나 남도를 찾을 때 식도락(食道樂)을 기대하고 간다. 오천원짜리 백반인데 삼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 반찬들... 그러한 풍요로움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광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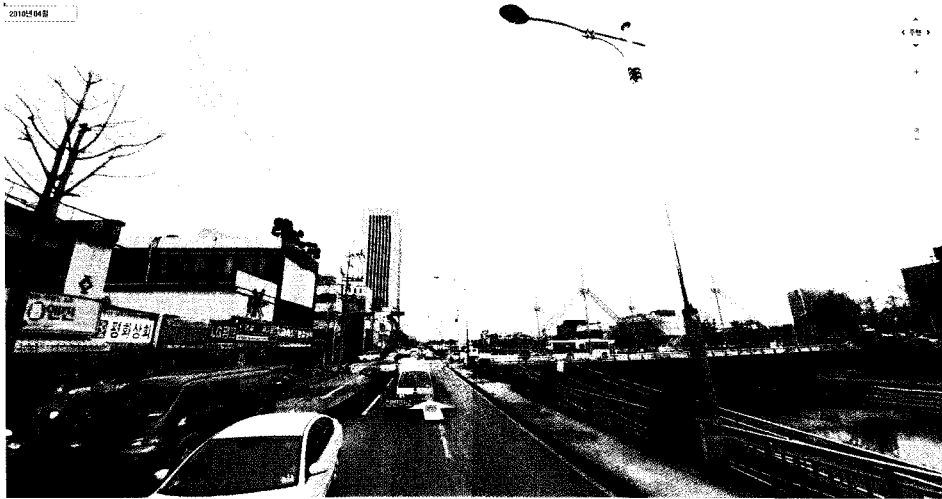
자 여기까지다.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광주라는 곳에 대한 장소적 교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본격적으로 광주천(교량 중심)을 중심으로 광주의 풍경을 들여다보자. 광주천을 대상으로 한건 순전히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인데, 얼마 전 광주 답사를 위해 갔다 양동시장의 유명한 국밥집에서 기대보다 맛있었던 국밥을 먹고 광주천을 잠시 산책을 했던 경험 때문이다. 다음의 사진은 광주천에 설치된 교량들의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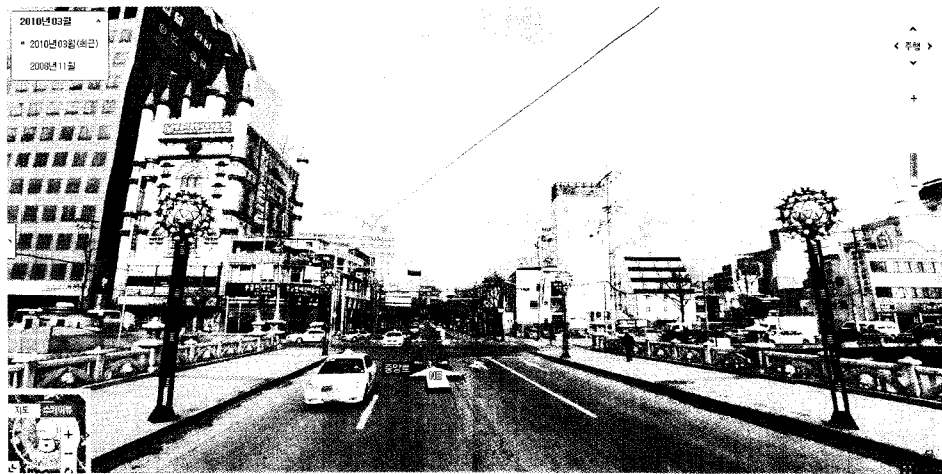
네이버 블로거 phil724님의 사진
가시문학 발상지인 광주호를 품고 있는 무등산. 광주호 부근에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서석대는 겨울에 더욱 신비롭다.
입석대와 함께 무등산의 제일풍경이다.



네 개의 'S'모양 주탑은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련된 장식물로 느껴지지도 않는 불필요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똥맞게 서있는 저 어저쩍한, 가로등도 아닌 것이, 주탑도 아닌 것들은 어쩔 빛고를 광주인 태양을 상징하기 위해 디자인 됐을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전구민큼이나 화려한 배경의 건축물들로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보인다 해도 외계인의 장난감처럼 느껴질 뿐이다.



저 아치 위에 세파-란색 모자는 꼭 씌워야 했을까? 없어도 관문 역할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광주천 너무 멀리 무등산이 보인다. 저 노랑과 빨간 띠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 각각 색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노랑은 평화, 빨강은 열정, 뭐 이런 식의...



혹시 유치원으로 안내하는 교량인가? 저 보도교로 걸어갈라치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다. 떨어질까 걱정도 되고... 킬리푼한 장식물은 보도와, 난간과 지지대와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전체 색감도 디테일도 아쉽다. (사진출처 : Daum로드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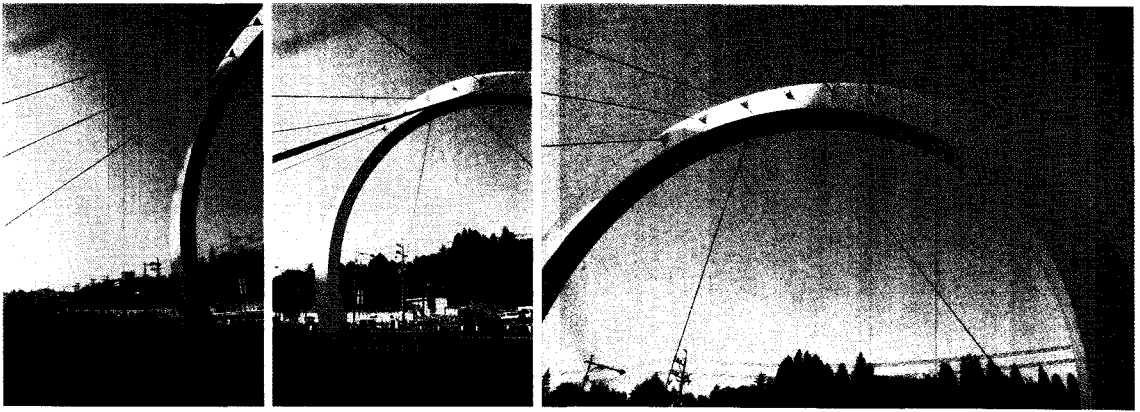
자, 과연 위에서 말한 광주의 뜨거움, 무등산, 풍요로움과 얼마만큼의 괴리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 짧은 1km의 광주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선조들이 오랜 세월, 힘들게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업적을, 나름의 '메세지message'를 전달하고자 과욕이 우스꽝스러움으로 바꾼 건 아닌지.... 지자체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외치는 명품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격을 위해 진정, 정성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 물론 이건 비단 광주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왜곡된 경관적 현상이 광주 교량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말해두고 싶다.

그러나 오늘의 나의 주장은 잘된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맥락에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대형토목구조물이나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만든다. 내가 하천과 문화에서 이 이



필자가 광주천에서 찍은 광주교의 모습이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관과 함께 다양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기를 다루는 것은 하천에 걸친 교량에 위와 같은 선부른 장식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가득한 교량의 설계과정을 보면, 어설픈 공무원들의 요구와 턱키 방식에 있어서 무조건 화려함을 추구하는 비전문가들의 요구 그리고 너무 힘없이 그런 것들을 수용해버리고 마는,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림으로만 접근하는 디자인 전문가들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무조건 봐야 하는 거다. 보기 싫어도 선택권이 없는 '일방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자.

사실 턱키가 경관에 어떠한 식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책 한 권 분량이면 하지만, 턱키의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지자체의 목소리, 시민의 의견은 거의 수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턱키가 대개 지자체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턱키 자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확정

하고 당선 유무만 따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턱키 과정의 의사결정구조가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기 때문이기도 그렇다.

어쨌든 일단 턱키 문제를 제치고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역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의 경관적 상징화의 방법은 두고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치장하지 말자. 어쨌든 지역의 스토리는 우리가 계속 발굴해야 하지만 굳이 형상화하지 않고 스토리로만 남아도 그 가치와 역할은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더 나은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 이런 해법도 있을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혹은 서투른 솜씨로 어설픈게 보여주다가는, 모두다 눈을 돌려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